

주일의 말씀

사순절을 보내며

박강희 안드레아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 오늘의 복음은 유혹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복음사가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요, 우리 인간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분이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사건 같아 보인다. 그것도 한 복음서에서만도 아니고, 마태오, 마르코, 루카 세 공관 복음서 모두가 이 유혹사화를 전해주고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교회가, 사순 첫 주일에 이 복음말씀을 신자들에게 듣도록 하는 것은 틀림없이 어떤 의도와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유혹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가 인간적으로 유혹을 받을 만큼 나약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은 악과의 끝없는 투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루카복음에서 그런 의도가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악마는 예수를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움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고 전해준다. 그 말은 유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때문에 예수는 자신의 전 생애와 활동을 통해 그 악과의 싸움을 끝까지 계속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머리에 채를 받는 예식을 하며 사순절을 시작했다. 우리가 지내는 이 사순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악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단절시키고자, 악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하느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되돌아서야 하는, 다시 나아가는 시기를 의미한다.

사실 우리 삶 속에는 늘 악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악의 유혹이 늘 우리들 곁을 맴돌고 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들은 창세기의 아담의 범죄 이야기에서처럼, **‘먹음직하고, 보기 좋고,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가 하느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려고 할 때마다, 악의 유혹들은 우리 앞에 **좋고, 편안한 모습으로 또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편안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악의 유혹들이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다가설 때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 기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용감히 그 악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악을 없애러 오신 **주님의 일**에, 삶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마음, 그런 결심, 그런 실천으로 올해 이 사순절을 살아야겠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루카 4,1-2

신명 26,4-10 로마 10,8-13 루카 4,1-13.

[설 명절 특집 2]

“가톨릭적인 차례(제사) 예식은 없나요?”

교구 사목국

시안으로 나온「조상 제사(차례)」예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상은 집안의 전통에 따라 차리면 되고요. 향로와 촛대, 중앙에 십자가를 모시면 됩니다. 차례를 지내기에 앞서 고해성사도 보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물론 기본이겠죠.

-예식순서-

▶ **영정을 모시면** 제주(祭主, 家長)는 십자성호를 긋고 함께 성가를 부른다.

▶ **제주가 영정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분향하고 잔을 받아 삼제(三祭: 술을 세 번 조금씩 따르는 것)한 다음 돕는 이에게 주면 돕는 이는 잔을 올린다. 두 번 절하고 물러난다.

▶ **참석한 모든 이가** 차례로 나아가서 잔을 올린다. 삼제는 하지 않는다. 두 번 절하고 물러난다.

▶ **이 같은 절차가 끝나면** 제주가 조상께 고한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오늘 다시()께 제사를 올리게 되었나이다. 이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드리는 저희의 정성과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주소서. 저희는 언제나 ()를(을) 기억하여 이 제사를 올리오니()께서는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전구하여 주소서』

▶ **제주는 아래의 말로** 참석자들이 함께 조상을 기억할 것을 권한다.

바로 사도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전해줍니다.

성경에는「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

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코린 2, 9)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로마14,8-9)

이 말씀으로 우리는 ()께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시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 **모든 참석자는** 두 번 절(再拜)한다. 다음 조상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한다.

▶ **제사를 마치면서** 조상과 가족, 친척들과의 통교를 더욱 깊게 할 것을 결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성가를 부른다.

▶ **영정(위패)을 따로 모신 다음**, 참석자들은 술과 음식을 나누며 가족, 친지간의 우애와 사랑을 나눈다. 아름다운 우리 전통의 차례, 제사의식은 산 이는 물론 세상을 떠난 이와도 함께 하나로 이어주는 거룩한 일치의 공동체 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이 지났네요.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 절로 인사드립니다. 대주 묵구

유혹에 얽 빠지게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사순 제1주일

입당성가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화답송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봉헌성가

212 너그ერი 받으소서

영성체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파견성가

116 주 예수 바라보라

영성의 향기

:: 영적 여정

기도에서 완성자 단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과 신비적인 일치를 체험하게 되는 때이므로 더 이상 영적 스승들의 도움이나 어떤 다른 도구가 필요 없게 되는 때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느끼기에 홀로 머무르는 것을 즐겨합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체험하게 되어 하느님의 참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신앙 안에서 생각하고 애덕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내적 활기로 삶의 원리를 체험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열정이 솟구치는 때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고 나누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사랑에서 우러나온 봉사의 삶으로 변화시켜서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영적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형제자매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일치하는 내면적인 면이 필요한데 이럴 때 그리스도와와의 관계가 성숙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관상적 단계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깊은 생각

공감과 감정이입



한 미국인 사업가는 유명한 그리스도 수난극을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이 부활절 연극에 깊이 매료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으로 이어지는 극적 사건을 눈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연극이 끝나자 그는 그리스도 역을 맡은 배우를 만나기 위해 무대 뒤로 갔습니다. 배우의 사진을 찍고 그는 분장실 한쪽에 있는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배우가 연극에서 메고 다녔던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사업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자, 사진을 받아요. 내가 십자가를 어깨에다 걸머지거든 재빨리 사진을 찍도록 해요.” 사람들이 말릴 겨를도 없이 사업가는 십자가를 어깨에 걸머쥐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십자가를 지려면 많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혈떡거리며 낙담한 표정으로 배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것 참, 난 십자가가 속이 텅 비어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당신은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다닙니까?” 그러자 배우가 반문했습니다. “선생,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 역을 연기할 수 있겠습니까?” 

- 옮겨온 글입니다. -

★ 모임 · 행사 ★

본당 반주자들의 고민해결을 위한 모임(1)

(성가가 느려요) 문의: 255-4847

- 일시: 2.21(월) 15:00, 장소: 대구가톨릭음악원
- 장소: 오르가니스트박수원(한예중, 연세대, 가톨릭음악원 출강)

가톨릭마음인회 빛모임

- 일시: 2.22(월) 20:00 요안나마음학원
- 문의: 010-6560-3086 / 010-8397-9783

뿌에리칸뜨레스 창단 15주년 기념음악회

- 일시: 2.24(수) 19:30, 문의: 255-4847
- 장소: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94차 선택주말

- 일시: 3.5(금)~7(일), 19:00까지 입관
- 장소: 꾸르실로 교육관(교구청 내)
- 신청: 선택카페(<http://cafe.daum.net/daeguchoice>)
- 문의: 010-9585-5370, 마감: 2.26(금)선착순40명

★ 성소모임 · 피정 ★

예수회 성소모임

- 일시: 3.6(토), 20(토) 17:00
- 장소: 예수회 센터, 문의: 010-7197-7400

선교후련 시그마코스 13기

- 일시: 3.12(금)~14(일)
- 장소: 충북 청원 엠마우스 피정의 집
- 대상: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신자(개인 · 단체)
- 문의: 미래사목연구소 031-985-2808

3차 효소단식, 침묵, 복음서 통독피정

- 일시: 3.22(월)14:00~26(금)15:00(1인 33만원)
- 장소: 정하상교교회관 041-863-5690 / 010-9558-7112
- 주제: 몸살림, 마음살림을 위하여
- 지도: 김용태신부, 김석태신부, 김연희수녀 외 2명

★ 모집 · 교육 ★

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부동산 경, 공매 재테크과정 30만원
- 개강: 2.18(목)매주 수,목10:00~13:00/ 19:00~22:00

-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감삼동캠퍼스 평생교육원
- 문의: 568-9800 / 010-4161-4443

살레시오 토보스코 직업전문학교학생 모집

- 대상: 만15~26세 남자(02-828-3600)
- 내용: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인성교육
- 특징: 교육비 · 기숙사비무료, 훈련수당지급, 고검반운영, 방통고편입학지도, 취업알선

- 접수: 2.25(목)까지 수시접수, 면접전형

가톨릭 아버지성경학교 입학미사

- 일시: 2.27(토) 14:00
- 장소: 아버지성경학교 교육관(경산시 중방동 688-6)
- 대상: 아버지성경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 첫수업: 낮반 3.5(금) / 밤반 3.3(수)
- 문의: 815-7888(fax접음)

수화교실개강(초급 · 중급)

- 개강: 2.28(일)14:00, 장소: 계산성당
- 일시: 매주(일)14:00/ 16:00(3개월, 회비6만원, 교재비별도)
- 문의: 동아선교사무실 254-3423 / 011-809-0447

제11기 외식최고경영자과정 모집

- 개강: 3.2(화) 10:30 (감삼캠퍼스103호)
- 내용: 대구가톨릭대 보건과학대학원 특별교육
- 교육: 1년 2학기 / 매주(화)10:00~17:00, 중식제공
- 대상: 외식식품 경영자, 관리자, 창업예정자
- 문의: 850-3179(www.oesikceo.com)

제5기 본당지도자, 봉사자(구역장 · 반장 포함)리더십교육

- 기간: 3.2(화)~3.6(토) 13:30~17:30
-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선착순 80명)
- 신청 및 문의: 사목국 250-3056

통합예술치료사 자격증과정모집

- 일시: 3.5(금) 9:30~12:30
- ORPT 대상관계부도교육 마음편 모집
- 일시: 3.15(월) 9:30~12:30
- 문의: 794-6022
- 주최: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센터

“신난다 첫 영성체” 교사 연수

- 일시: 3.8(월) 14:00~18:00, 회비: 12만원
- 장소: 대구 만촌1동 성당 (사전 접수 요함)
- 문의: 02-945-3300 / 010-9314-3037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476-6211)

- 어린이강좌: 미술교실, POP, 바이올린, 플룻
- 전문과정: 천연비누&천연화장품만들기, POP
- 성인강좌: 플루트, 바이올린, POP, 요가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 미 IVY리그 펜실바니아 대학 제휴
- 외국협력대학 유학 시 학점인정
- 이수 후 공립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응시가능
- 전화: 526-0121(<http://tesol.cu.ac.kr>)

수도자와 함께 하는 순례의 길

- 일시: 4.19(월)~28(수) 9박10일
- 내용: 이집트, 이스라엘
- 주최: 아세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영성연구소
- 문의: 권루치아 수녀 010-7131-3097

2010년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살고자 하는 분
- 대상: 만53세 이하, 문의: 632-9800

· 봉헌미사: 3.20(토)14:00, 장소: 월배성당

2010년 1학기신학교육원 신학강좌 수강생모집

- 과정: 신학일반, 성경, 특별(영성지도와 상담, 생명윤리, 성경안의 여성들, 교부학, 원문성경연구, 영어성경(로마서), 중재교육)
- 개강 및 수업시간 문의: 660-5105~6

가톨릭근로자회관 교육생 모집(253-1313)

- 에니어그램1단계: 3.5(금)~6(토)선착순20명
- 스페인어초급개강모집(화·목)오전11시
- 일본어초급개강: 3.2(화,금)10:00/ 19:00
- 영어초급개강: 3.6(토)10:00/ 11:00

대구가톨릭음악원 제22기 모집

- 문의: 255-4847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구미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2월 22일(월) 오전11시	도량성당	원로사제 월요 낮 미사	2월 22일(월) 낮 12시	성모당
4대리구 포항지역	2월 22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2월 23일(화) 오후 2시	성모당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22일(월) 오전11시	한티순교성지	바느의 성모모미사	2월 25일(목) 오전10시	삼덕성당
한티성지후원회 월례미사	2월 22일(월) 오전11시		공소후원회 미사	2월 27일(토) 오전11시	남산성당

2484 익스프레스

- 첼 곡 313-2484
- 서 구 566-2484
- 달서구 637-2484
- 수성구 761-2484
-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본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하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 전화 한 통하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 ☎ 080-421-5151(무료전화)
- 424-2240, 743-1977, 957-9543

성모노인복지센터

- 요양등급 받으신 대상자에게 전문케어 서비스 제공
- 요양등급판정 받으실 분 친절상담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 “내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 모시겠습니다.”
- ☎ 달서구: 053)564-1577
- 남구: 475-1877 / 수성구: 784-2888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선일외과 의원

- 원장, 전문의: 배선익(사도요한)
- TEL: 745-6633~4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 범어네거리, 수성못방향 → 300m

5 원동연박사의 차원 학습법

- 독서 · 논술 · 언어
- 교과서 분석 독서(초·중·고)

임채영(가밀라) ☎ 784-2180

밝은 눈 안과

- 원장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 전문의를
- 당일수술 · 퇴원 초음파백내장 · 라식수술

수술 전문 병원

- 달성고 맞은편 654-9660
-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미소인치과

- 원장 이종현(프란치스코)
- 송선희(안나)
- 범어네거리 교원공제회관 건너편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 전화상담 752-7575
- (화 · 목 ▶ 야간진료)

20년 역사의 SHINCHUN이 운영하는



나만을 위한 최고의 식사 多人園

- 단체급식 · 출장연회 · 프랜차이즈
- www.shinchun.co.kr 문의 ☎ 956-9900